

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하며, 인위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(한국민족문화대백과, 한국학중앙연구원).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,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.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, 법과 제도, 문학과 예술, 도덕, 종교,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,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.

원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·공유·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·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문화를 사용하며,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(Edward Bumett Tylor)는 저서 원시문화(Primitive Culture)에서 문화란 “지식·신앙·예술·도덕·법률·관습 등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”라고 정의하였다.

전통문화에서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의 고유 문화를 말하며,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면서 민족고유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.

이와 같이 문화라는 용어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가며, 역사적 시대, 사회집단,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.

풍수지리, 음양오행사상, 도교사상, 유교사상, 불교사상 등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적, 문화적 요소를 보면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문화를 볼 수 있다. 문화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,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, 그것은 단순히 정신